

투데이

9월 재공연 한다던 빅오쇼 '하세월'

나로호 부품 주말 도착... 이달내 발사 가능

태풍으로 시설물 파손... 복구비만 140억원 여수박람회 조직위-보험사 이견차로 지연

여수세계박람회 최고 인기 상품이었던 '빅오쇼'가 지난 9월 태풍으로 핵심 시설이 파손돼 재개장이 반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14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박람회 폐막(8월 12일) 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난 9월 빅오쇼를 다시 공연하기로 했지만 태풍 피해 복구가가 늦어지고 있다.

빅오쇼는 해상에 47m의 높이로 솟아오른 O자형 구조를 디오가 주무대

며, 디오에 빛을 쏘아 영상을 만들어 낸다. 검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화면은 색색의 빛으로 채워지며 예쁜 소녀의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을 그려내기도 해 관람객의 박수 갈채를 이끌어 냈다.

이에 조직위는 폐막 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아쿠아리움 등과 빅오쇼를 연계하기 위해 재공연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뒤흔친 태풍 '산바'

로 인해 지상 및 바닷 속 등에 설치된 관련 전기·기계 시설물들이 침수·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나서서 재공연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디오 등 주요 구조물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전기 시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등은 복구방법을 놓고 시설물 보험사인 A사와 협의 중이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복구공사는 아예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조직위는 빅오시설 시공사인 B사의 현장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시설물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복구비 140억원을 보험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자체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시설물을 수리·재활용하면 복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복구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시설의 상당 부분이 외국 기술로 만들어져 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교체 부품도 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면서 "공사가 끝나도 프로그램 시험 운영 등의 과정도 필요해 전반적으로 재공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임문택기자 mtlim@

나로호 3차 재발사에 필요한 대체 부품이 빠르면 17일께 러시아에서 국내로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첫 발사 시도에서 문제가 발견돼 러시아 측이 새로 마련한 '어댑터블록' 부품은 오는 17일께 국내에 도착, 이달 내 나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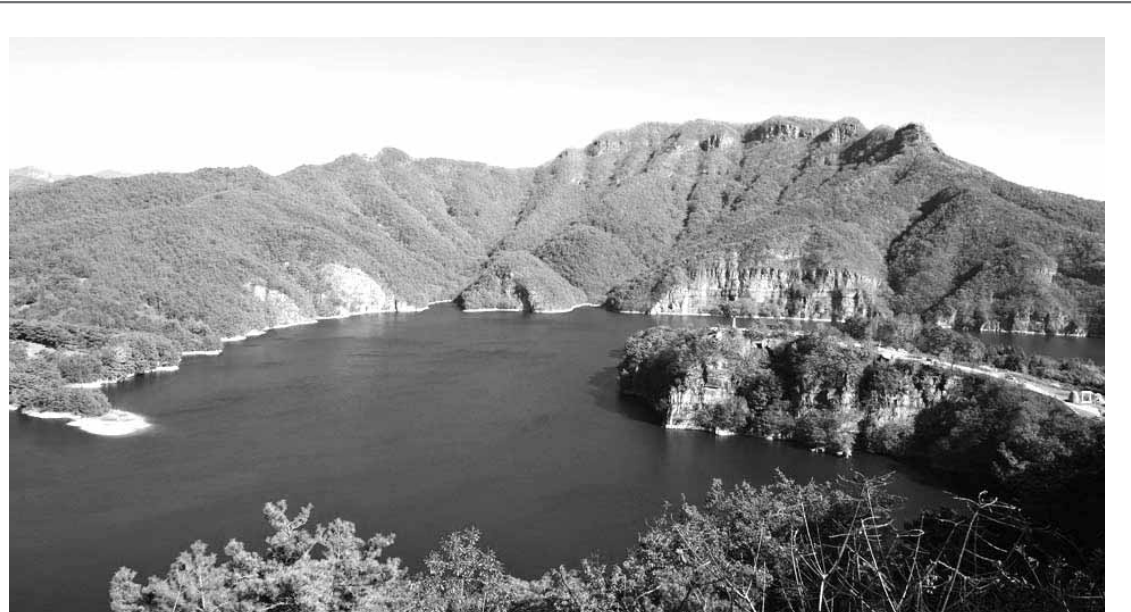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초 14~15일께 이 부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연방수출통제위원회의 수출 인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항공우연은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발사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17일께 어댑터블록이 도착하더라도 지난달 29일 당국이 발표했던 발사예정기간(9~24일)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17일 도착하더라도 부품 성능 테스트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광복기자 kroh@연합뉴스



'화순 제1경'으로 꼽히는 적벽(赤壁)이 단풍으로 물들었다. 잔잔한 강 위로 뻗어나간 수려한 절벽의 모습이 마치 푸른 비단에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은 듯 하다.

화순 제1경 동북댐 '赤壁' 개방 되나

郡, 관할 광주시에 요구...市 '환경부와 상의하겠다'

화순의 대표 명승지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출입이 통제된 '적벽(赤壁)'이 개방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적벽의 아름다운 절경을 관광객 등으로 활용하려는 화순군의 입장과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맞서 자칫 '물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홍익식 화순군수는 지난 12일 관운대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시 관할인 동북댐(화순군 이서면) 인근 적벽을 개방해주시도록 요구했다. 홍 군수는 "높이 100m가량의 맑은 편 절벽에서 관광이 가능하고 시설물은 전혀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가 우려하는 상수원 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

된 적벽은 붉은색 기암괴석과 단풍이 어우러져 '화순 제1경'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난 198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통제됐다. 삼장강 지류인 동북천 상류에 동북댐이 들어서면서 인근 4개 마을과 적벽 일부가 물에 잠겼다.

화순군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적벽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광주시는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화순군은 이와 함께 동북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과 인근 지역을 관리하는 광주시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사업비 지원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예

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순군은 동북댐의 물을 용연정 수장으로 보내는 도수(導水)터널공사에 따라 광주로 보내지는 물값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북댐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 시민들을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광주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와 상의해 적벽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화순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정기자 redplane@

무상급식 예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1조6천억·3조1천억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 예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 증·개축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양·시도 교육청에서 교원급여, 학교 시설 유지 등 고정지출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이 전체예산의 40%대 안팎인 상황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 예산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1조5121억원보다 6.1% (929억 원) 증액한 1조6051억원원을, 도교육청은 17.1%로 증가한 3조

1828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의 주요 복지사업 예산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999억원, 누리교육과정 709억원 등 총합이 17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를 넘어섰다. 시교육청의 전체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955억원)였다.

복지예산 확대는 교육인프라 구축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을 상대로 시행한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수요조사에서는 관련 사업비로 모두 1120억원이 접수됐지만 이 중

31%인 342억원만 반영됐다.

도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1475억원), 누리교육과정 확대(793억원)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8%대에 달했다.

주요 예산은 공립 교직원 인건비 1조4155억원, 차별 없는 교육복지 확대 3297억원, 지원중심 교육정책 구현 9758억원, 누리 교육과정 793억원, 읍·이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1475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인건비 상승, 국가시책 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교육복지 수요 또한 매년 늘어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penfoot@

특검, 이시형씨 불기소...부지매입자금 12억은 '증여'

추대통령 공소권없음...김윤옥 여사 혐의없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검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제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중(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기소 기소했다.

이광범 특검장은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중,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운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용하는 노후인생과 빈병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성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지 참조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재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재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점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메네, 투사랑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준공 완료

시공 **태도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

네이버캐페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을 차분세요. **NAVER**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061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2월 1일 오픈

※주택전시관 방문고객께 시은품을 드립니다.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태도건설** 분양 및 임대문의 | ☎ 062-576-8938 · 016-885-0881